

‘강진 반값여행’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용액 50% 관광상품권 환급
시행 7일 이내 정산 신청 적용
야간 콘텐츠 등 즐길거리 다채**

전라남도 강진군의 대표 관광정책 ‘강진 반값여행’이 오는 7월1일부터 재개된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반값여행’은 전국 최초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관광정책이다.

강진을 여행하며 지역 내에서 사용한 금액의 50%를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 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은 강진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gangjintour.com)를 통해 여행 당일까지 가능하며 신분증 제출 한 번으

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을 신청하면 최대 당일 이내에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강진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인증 사진과, 강진 내 소비 영수증이다.

3대 물놀이장부터 가우도 야간 콘텐츠까지 다채로운 지역 즐길거리가 편성돼 있다.

무더위를 날릴 강진 3대 물놀이장인 강진읍내 보은산 V랜드, 칠량면 초당림, 도암면 석문공원은 7월19일 개장해 8월17일까지 운영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전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마랑놀토수산물시장에서는 흥겨운 공연과 함께 마랑항의 싱싱한 수산물을 할인가에 즐길 수 있으며 이곳에서의 소비 역시 반값여행 혜택 대

상에 포함된다.

강진의 야경 명소 ‘가우도’는 십이지신을 모티브로 한 ‘십이문 캐릭터’ 포토존, 십이문 응원하기·운세보기 등 야간 체험 콘텐츠가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달 조형 LED와 반딧불 조명 아래에서 낭만적인 밤바다도 감상할 수 있다.

낮에는 가우도 모노레일과 제트보트 등 해양레저까지 즐길 수 있어, 강진에서의 하루가 부족할 만큼 다채롭다.

여름방학을 맞아 조용한 시골에서 힐링하고 싶다면, 강진의 대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푸소(FU-SO)를 추천한다.

강진 어머님이 손수 차려주시는 정성 가득한 아침밥으로 하루를 시작해, 아름다운 자연과 농촌체험, 지역 관광지를 두루 체험하며 ‘강진의 속살’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촌캉스(농촌+바캉스) 코스다.

더불어 지난 4월 개관한 강진영화관에서는 최신 영화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어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다.

이 모든 여름 콘텐츠는 강진 반값여행과 함께하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어 즐겁고 알찬 여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대한민국 반값여행 1번지 강진군에는 즐길거리, 먹거리, 쇼핑까지 모두 반값에 즐길 수 있고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여름 콘텐츠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며 “반값여행은 단순한 관광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나 마찬가지다. 새정부, 새시대에 발맞춰 강진군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초등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운영
신안군, 내달 23일부터 정규수업**

전라남도 신안군이 23일 신안군가족센터 교류소통실에서 ‘2025년 초등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번 연수에 최종 선발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과 학부모 30명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연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어학연수는 오는 7월23일부터 8월18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Elm Park School에서 진행된다.

연수 참가 학생들은 현지 정규수업과 함께 영어 집중 교육(ESOL),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국제적인 감각, 자율성, 그리고 문화적 포용력을 키울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신안군은 이번 연수 참가자 선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19일부터 28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했으며 (주)YBM/한국TOEIC위원회에 선발 과정을 위탁했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 둔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중 신안군 내 중학교에 진학해 졸업하겠다는 서약을 한 학생에게 주어졌다.

신안=홍일갑 기자

**목포해경, 고장 여객선 승선원 구조
경비정 급파… 목적지 안전 이송**

승선원 87명이 탄 타기 고장 여객선을 목포해경이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급파, 승선원 전원을 안전하게 이송했다.

23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 51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동방 약 1km 해상에서 여객선 A호가 승객 83명과 선원 4명을 태운채 타기 고장으로 비상조타로 향해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A호는 장산도 측강 선착장을 출발해 목포 여객선터미널로 입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미리 안전지대 투묘 및 구명조끼 착용 등을 당부하고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해 2차 사고를 대비해 주변해역 안전관리를 진행했다.

여객선 A호의 승객 전원을 경비함정 3척으로 나눠 편승해 목포 연안여객선 터미널로 이동 후 안전하게 하선 조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위험 우려가 크다”며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대학생멘토·초중생멘티 모집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전라남도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2025년 하계 대학생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생 멘토와 초·중생 멘티를 모집한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여름방학 시기에 지역 선후배인 멘토 대학생과 멘티 초·중학생이 학습지도, 체험활동 등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성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나선 것.

멘토는 영암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하고 부모 또는 본인이 3년 이상 영암군민인 동시에 현재 주소지가 영암인 대학생이 오는 7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멘티는 영암 초등5~중학생으로 오는 7월1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멘토·멘티 모두 영암군과 영암군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멘토는 배정받은 초등5~중학생 멘티 2~3명과 활동계획을 세운 뒤 학습지도, 기타 활동 등 30시간을 함께 한다.

영암군의 하계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은 오는 7월28일 결연식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목포시, 침수 피해 대비 당부
25~28일 최고 5m 이상 해수면 상승**

전라남도 목포시가 25일부터 28일(오전 1시부터 5시 사이)까지 바닷물 수위가 최고 5.0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위 상승에 대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펌프장·배수갑문·수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해안 저지대에는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해안이 인근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를 삼가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계도 및 안전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목포시는 “예보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 주변 차량 이동 및 안전 점검 등 사전 대비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 19일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열렸다. 교육에는 노인일자리 전담부서 직원 등이 참여해 심폐소생술을 실습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보건소, 고령화 사회 대비 심폐소생술 교육

목포시보건소가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목포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23일 목포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 일상 속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조별 팀장, AED 관리책임자 등 총 51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한국병원 응급의학교육팀 소속 전문 강사 3명이 진행했으며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AED 사용법, 응급환자 대응 사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실습 교육이 병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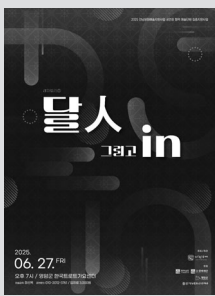
목포시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

장 대응력과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갖춘 ‘골든타임 지킴이’ 인력을 양성하고 앞으로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암군, 27일 전통국악공연 연다



선보인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전남문화재단의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집중지원사업’에 선정된 더현음재(대표 정세영)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고대악기 ‘마한금’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돼 있다.

공연의 첫 무대는 2005년, 2008년 각각 국립국악원에서 복원 연주된 ‘세화자’가 장식한다.

16년 만에 다시 재현되는 이 곡은 영암의 갈골들소리를 주제로 마한금의 독특한 음색이 관객들을 고대의 정취로 안내한다.

이어 마한금과 25현 가야금 2중주의 ‘영보정 풍류’가 연주되고,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1인창곡 ‘숫아라, 장독샘’, 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화룡도’, ‘있다, 있다 맥(脈)’, ‘경계(Boundary)’ 등 다채로운 작품이 무대를 장식한다.

관객들은 전통 가악무와 서양악기의 협연 속에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무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영암군의 설명이다.

공연 관람료는 3000원이고 누구나 현장 예매를 거쳐 관람할 수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